

## 발걸음 빨라지는 광주 '방직공장터' 초대형 개발

市 '챔피언시티' 주택 건설 승인  
9만평 부지내 4천315세대 주거시설  
특급호텔·백화점·역사공원 등 연계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축허가  
더현대 2027년·아파트 2029년 완공



'6·25' 주먹밥 체험 6·25 전쟁 75주년을 앞둔 23일 광주 북구청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전쟁 당시 먹었던 주먹밥을 만들어 시식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 당시 실제로 먹었던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전쟁의 참혹함을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애리 기자

계대 백화점, 호텔, 공원,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도보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는 도심 속 자족형 복합단지 기능을 극대화하며 입주민은 물론, 지역 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도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주도 개발임에도 6천여억 규모의 공공 기여 재원이 확보돼 공공시설 확충, 도시환경 개선, 역사공원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챔피언시티 주택 개발 시공사의 경우 포스코 이앤씨와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오는 10월 착공, 2029년 완공 목표다.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2단지 3천216세대의 1차 공급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부지 내 호텔 건립 사업에는 신라호텔 등 국내의 특급호텔 브랜드들이 입점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광주 북구는 지난 18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축 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완공, 2028년 개점을 목표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챔피언시티 관계자는 "챔피언시티는 광주 남부권의 생활·상업·문화 중심축이자 지역 고용과 소비 유발, 광주시의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정의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광주라는 도시 속에 조성되는 또 하나의 도시이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모든 것을 갖춘 복합도시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에 대한 건축 허가에 이어, 총 4천315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도 승인하는 등 초대형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방직공장터 개발 사업자인 챔피언시티 복합개발 피에프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일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올 뉴 챔피언시티'(챔피언시티)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2020년 토지 계약 체결, 2021년부터 1년여간 진행된 근대건축물 보존 특별법(TF) 협의, 2023년 사전협상 완료, 2024년 통합 심의 등 5년에 걸친 주요 인허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승인이 이뤄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광주 북구 임동 100-1번지 일원 29만8천㎡(9만평) 부지에 들어설 챔피언시티에는 총 4천315세대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 특급호텔, 역사공원 등이 조성된다. 개발자(디벨로퍼)가 하나의 도시로서 상징성·실용성을 모두 고려해 초기 기획부터 브랜드 유치, 운영 전략까지 직접 설계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단돈 시공을 넘어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챔피언시티는 하나의 도시로서 상징성·실용성을 모두 고려한 구조가 적용될 전망이다.

챔피언시티 중심부에는 '도심(어반 코어-Urban Core)' 개념을 반영한 보행 중심 동선이 설

계는 '도심 속 자족형 복합단지 기능을 극대화하며 입주민은 물론, 지역 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도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

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부 조현  
과기 배경훈·환경 김성환·고용 김영훈  
보훈 권오을·해수 전재수·여가 강선우  
중기 한성숙·송미령 농림장관은 유임  
광주·전남에선 여수 출신 김성환 유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2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4선, 전북)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안 후보는 전북 출신이기는 하지만 광주 서석고를 졸업해 광주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4선, 전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전북)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이번 장관 인사에서 전북 출신은 3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서울)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경북) 전 의원을 낙점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여수 출신의 민주당 김성환(3선) 의원이 발탁됐다. 김 후보자는 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정책수석, 당대표 비서실장, 서울 노원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 문제를 지속 고민해 온 3선 의원"이라며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안규백(국방) 정동영(통일) 조현(외교) 배경훈(과기) 김성환(환경) 김영훈(고용)



권오을(보훈) 전재수(해수) 강선우(여가) 한성숙(중기) 송미령(농림) 윤창렬(국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3선, 경남)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대구, 재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경기)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부산)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송미령(충남)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했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강원)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김진수 기자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25 8.30.-11.2.

너라는 세계  
YOU, THE WORLD

디자인은 어떻게  
How Design 인간을 끌어안는가  
Embraces Humanity

광주비엔날레  
Venue: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Hosts: Gwangju Metropolitan City / Gwangju Biennale Foundation

2025 광주 방문의 해  
축제가 온다!  
광주시가  
왔다

즐거움이 온다!  
민주가 온다!

빛이 온다!

세계인이 온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9. 5. ~12.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2025. 9. 22. ~28.

The Echo of Peace 평화의 에코